

3. 지역을 넘어 세계로 - 조선대 총학생회 보은제와 해외봉사

“소통과 브랜드 확장... 경쟁력 확보”

조선대학교는 호남지역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하기까지 함께 해 준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 축제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해외봉사 활동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지난 2013년부터 총학생회 대동제와 단과대학 축제를 통합해 ‘빛고을 보은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설립주체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넓은 캠퍼스와 편리한 교통의 이점을 살려 구성원과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더불어 즐기는 보은제는 해마다 1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

또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으로 인류애를 구현하고 조선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제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현지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국제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 학생에게는 ‘국제자원봉사’ 1학점을 인정하고 현지에서 발급하는 국제봉사 수료증과 문화 마일리지 부여한다.

올해도 지난 1월 6~14일 필리핀 지역에서 한국어 예체능 등 교육 봉사와 생활에 필요한 주택 및 건축물을 지어주는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

또 교육 한류를 선도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한국어 해외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국제 한국어교육·문화 교류 봉사단’ 50여 명을 구성해 베트남과 몽골로 파견했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참



조선대학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으로 인류애를 구현하고 학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제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선대학교

총학생회-단과대 축제 통합해 ‘빛고을 보은제’로 국제봉사단 파견...봉사·문화체험으로 인류애 구현

여 학생들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조선대는 또 글로벌 선도 대학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의 하나로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베트남 궤년직업훈련대학 사후관리사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관광개발 정책 및 마케팅 전략사업 등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 2016년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은 개도국 대학 내 필요한 학과구축(또는 리모델링)과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선대 간호학과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년 동안 국비 16억원과 교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몽골 민족대학교의 간호학 전공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대학교가 있는 바양골 지역의 취약계층 암환자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선대는 몽골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몽골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몽골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수준의 간호 보건복지 교육 시스템 도입과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협력 선도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국형 교육분야 국제 협력의 모델을 개발해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립대학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조선대의 설립 가치와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